

2018년 제4회 이사회 개최

총괄기대회·천막 단식농성 결과
협회 주요추진사항 보고



한국오리협회는 11월 7일(수) 오후 1시 광주 김대중컨벤션 센터에서 2018 제4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회(2018년 제3회 및 긴급 이사회) 이사회 의 사경과를 접수하고 총괄기대회 및 천막 단식농성 결과와 협회 주요추진사항을 보고 했다.

의결사항으로는 총 5가지로, 정관개정(안)에 대해서는 정관 제4조 5의 가격안정 용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오해소지가 있으므로 법리적 검토 후 필요 시 용어를 변경해 총회 의결을 받는 것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임시총회 개최(안)에 대해서는 임원이 별도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내부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회비 및 제수입금 부과 정

수에 관한 규정이 회비납부가 우수한 지회에 납부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됐고, 이외규정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 기존 영남지회-경남/경북 지회로의 분리(안)은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경북지회의 신설로 대의원 1명을 지회로부터 추천받아 확정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김종구 이사 사임(11. 2)에 따른 결원 임원(이사) 선임(안)에 대해서는 경북도지회의 도재환 지회장과, 전남 김재익 이사가 선출되었다. 정관개정 이후 이사 2명 증원에 대해서는 전북 박하담, 전북 고흥열(참프레)가 선임(안)으로 결정됐으며 추후 총회 의결로 결정하기로 했다.

기타사항으로 지자체별 추가사육제한 추가시행에 관해 논의했다.

